

#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경제

김영희(한반도신경제센터, kbukyh@kdb.co.kr)

- ◆ 김정은은 '자력갱생'과 '내부개혁'을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'쌍두마차 전략'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, 실제로 농업부문에서 시너지효과가 가시화
- ◆ 북한은 올해 '20년 「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」 수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대북제재에서 경제상황의 악화를 최대한 관리하면서 관광재개를 위한 채비에 총력을 집중할 전망

## □ (김정은 정권의 쌍두마차 전략) 북한은 최근 들어 '자력갱생'과 '내부개혁'을 대내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활용

- '자력갱생'은 '자립경제', '주체화'와 더불어 북한의 일관된 전략적 노선이나, 올해 신년사에서 공식 슬로건으로 특별히 부각, 이는 대북제재 등 외부요인에 대한 장기대응 전략으로 풀이

\* 자력갱생, 자립경제, 주체화는 자국의 자원과 기술로 자국 실정에 맞는 경제건설을 의미

김정은 신년사의 연도별 슬로건과 자립강조 횟수

| 연도   | 내용   |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|--|
| 2019 | "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"                | 18번 (자력갱생 3번, 자립경제 5번, 주체화 10번)        |
| 2018 | "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"         | 9번 (자력갱생 2번, 자립경제 2번, 주체화 4번, 자력자강 1번) |
| 2017 | "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"                | 8번 (자력갱생 2번, 자립경제 1번, 주체화 1번, 자력자강 4번) |
| 2016 | "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"         | 4번 (자립경제 1번, 주체화 3번)                   |
| 2015 | "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"        | 2번 (자립경제 1번, 주체화 1번)                   |
| 2014 | "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" | 2번 (자립경제 1번, 주체화 1번)                   |
| 2013 | "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,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"      | 1번 (주체화 1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2019년 북한 신년사 참조하여 작성

- 과거의 '자력갱생'은 '계획적 관리방법'하에서의 전략이었으나, 최근 들어 강조하는 자력갱생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'시장적 관리방법'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대내경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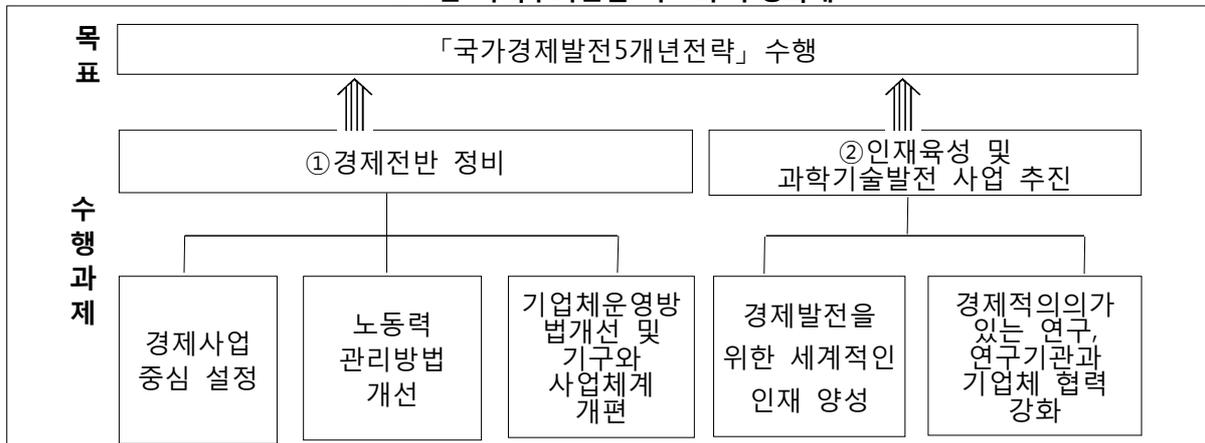
- 농업개혁에서 협동농장의 토지임대 정책은 개별 농민들의 다수확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개혁 효과가 검증되었으며, 이에 북한은 올해부터 축산임대에 의한 '개인부업축산'을 도입하는 등 개혁 범위를 확대할 계획

\* "(중략)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."(신년사중)

□ (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 준비 총력) '20년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수행을 위해 '인재육성', '과학기술발전', '경제전반 정비'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

- 김정은은 집권이후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이라며, 최첨단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, 현대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, 경제중심의 과학기술과 인재육성은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
- '14년 '5.30담화'에 근거해 추진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은 지난 5년동안 이행 과정을 통해 한계와 개선과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,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완료 전년도인 올해에 성과달성을 위해 과감한 개혁 필요

2019년 사회주의건설 목표와 수행과제



자료 : 2019년 북한 신년사 참조하여 작성

□ (2019년 북한경제 전망)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신규 관광지구개발 등 관광재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

- 충분한 에너지 확보, 기업의 경영활동 개혁, 농민의 개인 농업활동 확대 등으로 대북제재에 의한 경제침체 차단
  - 전력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과 지방별 에너지 자원개발,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조성 등에 의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확대 예상
  - 기업의 계획화방법, 가격제정, 자금조달과 같은 재정관리 등 기업의 관리방법에서 변화가 예상되며, 토지임대와 더불어 농민에 대한 축산임대 등 곡물 및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전망
- 난항은 있겠지만,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될 가능성
  - 김정은이 금번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그 어떤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힌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